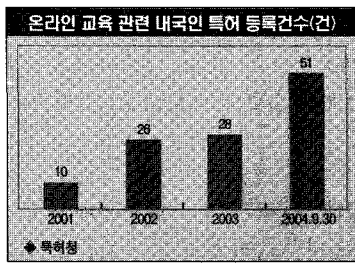


# 국내 온라인 교육시장 특허로 지킨다

교육시장 개방과 함께 외국대학들이 국내 온라인 교육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온라인 교육과 관련된 내국인의 특허등록 건수가 해마다 크게 증가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온라인 교육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교육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특성이 있다. 국내의 시장규모는 연평균 49.8%의 고도 성장세를 지속하여 2007년에 8조4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무궁무진한 성장성과 확실한 수익성을 갖고 있는 교육 산업분야이다.

특허청에 따르면 온라인 교육관련 발명의 내국인 특허등록 건수는 2001년에 10건에 불과 하였으나, 올해 9월말 현재 5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국인의 특허출원 건수도 2000년을 정점으로 전자상거래관련 출원의 전반적인 감소와 더불어 다소 감소하다가 2002년 이후 연간 2백여건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한편 외국인의 특허등록 건수는 2002년과 2004년에 각각 1건에 불과했으나, 출원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에 온라인교육과 관련된 특허출원은 기술적 구성이 특별히 곤란하지 않고 사이버 공간의 경제 활

동이 적극적으로 보호되고 있으므로, 개인별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캠퍼스 포털 등 참신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반영된 국내외 출원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교육시장 개방과 함께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외국 대학 및 기업들의 국내 진입을 앞두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국내 온라인 교육관련업체가 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사활의 문제로 다가올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교육관련 주체들은 질적 경쟁력 확보와 함께 창조적인 아이디어에 대하여 독점적인 특허권을 확보하여 생존을 위한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특허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할 것이다.

# 특허청, '변리사 등록업무' 대한변리사회로 이관

특허청은 기존에 담당하고 있던 변리사 등록업무와 수습변리사 관리업무를 대한변리사회로 이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기간계산 착오 등으로 납부시기를 놓쳐 소멸된 특허권도 일정 요건 하에 회복시켜 주는 '권리회복제도'도 도입하기로 하였다.

특허청과 대한변리사회는 지난 11월 5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김중갑 특허청장, 이상희 대한변리사회장을 비롯한 양측 간부 30여명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변리업계와 애로사항 및 특허제도 혁신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간담회에서 제기된 사항 중 합리적인 부분은 적극 수용하여 이와같이 관련제도를 개선키로 한 것.

현행 변리사법 규정에 의하면 변

리사시험 합격자와 변호사는 변리사 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변리사 자격자가 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허청에 변리사로 등록해야 한다. 그리고 변리사시험 합격자는 변리사로 등록하기 위하여 1년간 실무수습을 마쳐야 한다.

변리사 등록업무와 실무수습 관리업무를 변리사 단체에 이관함으로써 특허청은 실무 집행적 업무는 관련 전문단체에 넘기고 고유의 정책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실무수습과 등록업무를 통합하여 일선 변리사 단체가 담당함으로써 현장감 있고 내실 있는 변리사 소양교육이 이루어지고, 등록변리사 관리업무도 더욱 전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은 최단 시일 내에 관련법령을 정비한 후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업무를 이관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특허권 소멸 후 회복제도'를 도입키로 함에 따라 특허권자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전망이다. 현행 특허법에 의하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존속기간 중(출원일로부터 20년)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고, 납부시기를 놓칠 경우 특허권은 자동으로 소멸되도록 되어있으며 정상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못한 경우 6개월 내 추가납부기간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소한 실수로 추가납부 기간까지 넘긴 경우 귀중한 특허권이 소멸하게 되어 큰 손실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 실지중인 특허에 한해 일정한 권리회복 기간을 추가로 더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 휴대전화 등의 화상디자인 법적 보호 활발

정보기술의 발달로 화상 디자인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는 가운데 특허청은 지난 2003년 7월 1일부터 의장심사기준을 개정하여 의장법에 의한 의장권으로 화상 디자인을 보호하는 제도를 시행하였다.

화상 디자인이란 휴대전화, 컴퓨터 모니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등 정보통신기기의 액정화면 등에 표시되는 도형, 그래픽 등의 디자인을 말한다. 그리고 냉장고, 전자레인지, CD 플레이어, 자동차 네비게이터 등 정보가전제품의 액정 화면에 나타난 그래픽 명령

창, 홈페이지의 디자인, 휴대용 게임기 등 모바일 기기의 외부 창에 나타난 도형이 모두 화상 디자인에 포함된다.

제도 시행 이래 2004년 9월 30일까지 화상 디자인 총 출원건수는 4백20건이며, 이중에 1백57건이 등록 결정되어 의장권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고, 나머지 2백47건은 심사대기 중에 있으며, 16건은 거절이 결정되었다.

화상 디자인을 가장 많이 출원한 기업은 인터넷전문기업인 엔에이치엔(NHN)으로서, 출원한 품목은

컴퓨터 모니터(48건)와 휴대전화(11건)로 총 59건이 출원되어, 42건을 의장권으로 등록받았다. 그 다음으로 삼성에스디에스(47건), 엘지휴소애플(31건), ㈜더블유알지(28건), 삼성전자(26건), 비씨큐어(26건) 순으로 화상 디자인이 출원되었다. 화상 디자인에 관한 의장출원은 현재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 PDA 등에 집중되어 출원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 액정화면이 표시된 정보가전제품에 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공의 적, '비만'을 잡아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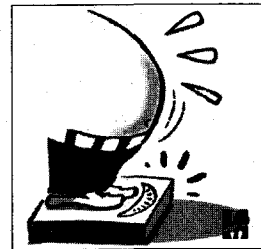
최근 당뇨병, 고혈압, 심장병 등과 더불어 비만이라는 질병이 전세계의 새로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국제보건기구인 WHO는 비만의 해악이 전염병보다 크다고 밝히며 이를 퇴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벌이고 있다. 우리나라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함께 비만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데, 2004년도 국내 비만치료제 시장은 7백억원으로서 전년 대비 155% 이상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점이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허청 자료에 의하면, '95년부터 2003년까지의 비만치료제 특허출원은 총 2백36건으로서, 그중 2000년부터 출원이 급격히 증가하여 2003년까지 총 2백12건이 출원되어 전체출원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 출원 중 내국인 출원은 1백3건으로 전체의 44%를 점유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미국 57건(24%), 영국 25건(11%)순이다. 특히 내국인 출원은 2002년 들어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연간 출원의 46~64%를 차지하고 있다.

비만치료제 시장은 독일과 미국 제약회사의 2개 제품이 시장의 90%를 점유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업체들이 치료제보다는 천연물을 이용한 다이어트 식품 위주의 제품에 주력했기 때문이다.

비만치료제 시장이 향후 큰 폭의 성장세가 예상되고, 최근 들어 민간약 및 생약에 집중된 내국인 출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조만간 부작용이 적은 국내 천연물 신약이 다수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비만이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특허청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 출범

특허청은 항공우주 분야의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기술개발을 장려하고 특허권의 획득을 지원하기 위한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를 지난 11월 12일에 출범시켰다.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 회원은 항공우주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산·학·연·관계의 종사자로서 총 47명이며, 산업계 24명(51.1%), 학계 3명(6.4%), 연구계 3명(6.4%), 그리고 특허청 심사관 17명(36.1%)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는 금년 8월부터 한국항공우주기술 연구조합과 협력하여 산·학·연 인사를 대상으로 회원을 모집하였으며, 모두 1백여명의 신청자 중 연구회의 효율화를 위해 분야별로 적정한 회원을 선정하여 구성되었다.

앞으로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는 회원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협력력을 통해 항공우주 기술의 특허화 및 사업화를 지원하고, 신기술에 관한 정보공유 및 세미나 등의 개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항공우주 분야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은 2000년 이후 1백여건 수준으로 꾸준히 유지되어 오고 있으나, 이번에 출범되는 항공우주기술 특허연구회의 적극적인 활동에 따라 이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 되어지면 출원 증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분야의 생산액은 3조원 수준. 항공우주 부품개발 사업투자도 2000년 50억원에서 2003년 190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오고 있어 이 분야의 특허·실용신안 출원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 ‘이화’·‘Ewha’는 이화여대 고유 상표

이화여대가 ‘이화’라는 명칭을 둘러싸고 사설 어학원과 별인 상표권 분쟁에서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최근 이화여대가 지난 5월 ELC코리아(주)가 사용하는 ‘이화어학원, 헬로이화’ 등 서비스표 6건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 심판에서 ‘ELC코리아 서비스표는 이화여대 표장과 외관, 호칭이 유사하다’며 이화여대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심결문에서 ‘이화여대를 나타내는 ‘이화’ 또는 ‘Ewha’ 표장은 비영리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 이미 국내외에 널리 알려져 있다’며 ‘사설 어학원 등록상표는 이화여대 표장과 유사해 일반 소비자에서 서비스표 출처를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화여대 측은 ‘이번 심결을 토대로 다른 업체 상표 사용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가 R&D 특허’가 버려진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정부 예산을 지원받아 확보한 국가 R&D 특허권이 매년 수천건씩 버려지고 있다. 더욱이 출연 연구기관(이하 출연연)들은 늘어가는 특허관리 비용부담 때문에 취득한 특허를 폐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어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1월 21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대덕연구단지 내 19개 출연연은 최근 2~3년간 연 1천건이 넘는 특허를 등록하는 왕성한 연구력을 자랑해 왔지만 건당 1천만원 이상 소요되는 출원비용(해외), 차후 유지비용 등으로 인해 특허 포기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최대 기관인 전자통신연구원(ETRI)의 경우 지난해만도 무려 1천여건의 특허를 포기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출연연 가운데 가장 많은 특허를 생산하는 ETRI의 특허 관련 예산은 50억원 규모다. ETRI는 지난해 국내 공공기관 전체 특허출원 건수의 59.2%인 국내 특허출원 1천3백94건 및 등록 4백87건, 국제 특허출원 3백70건 및 등록 1백21건의 실적을 냈지만 포기한 특허권도 1천여 건에 이르고 있다. 통상 해마다 2백~3백건의 특허권이 포기되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10년간 수천 건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ETRI 관계자는 ‘보통 특허유지 연수가 7~10년 될 경우 마케팅 팀과 해당 연구자, 특허심의 위원회 등의 특허 가치 검증 을 거쳐 기술이전이나 매각을 추진한 뒤 안될 경우 특허 유지비인 연차료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포기하고 있다’며 ‘선진국도 우리와 사정은 비슷하다’고 말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5년된 특허를 대상으로 상업성을 판단한 뒤 라이프 사이클이 5년 이상 되는 원천기술이라 할지라도 해당 연구자의 이익제기가 없으면 자동 폐기하고 있다. 화학연구이 올해 포기한 특허는 1백5건이다. 지난해에는 2백17건을 포함해 지금까지 총 7백47건의 특허를 포기했다.

지난해 1백30건의 국내외 특허 출원과 92건의 특허 등록에 6억원 가량을 투입했던 원자력연구소는 아직까지 포기한 특허는 없으나 현재보다 특허 관리비용이 증가할 경우 7~8년된 특허부터 상업성을 따져 순차적으로 유지를 포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출연연의 한 특허 담당자는 ‘10년 이상된 특허를 포기하려고도 했다’며 ‘그러나 경쟁력이 떨어지는 상업용은 포기가 가능하지만 국가차원에서 경쟁국을 견제하기 위해 등록한 방어 특허는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 나름대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별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출연연 관계자는 ‘특허 예산이 조기 소진된 기관의 경우 연말까지 특허를 내려는 연구자와 담당자 간의 ‘특허 질 및 예산 논쟁’이 일어 난다’며 ‘재원은 한정돼 있고, 그렇다고 특허를 출원하고 유지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 특허청,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 개최

특허청은 유럽상표·의장청(OHIM)과 공동으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Seminar On Ways Of Protecting Your Trade Marks In Europe)’를 지난 11월 12일에 한국발명진흥회 국제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EC가 국제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기탁서를 제출하고 동 의정서가 EC에 대하여 2004년 10월 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출원인은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서를 제출함으로써 유럽공동체를 지정할 수 있게 되어 유럽공동체 25개 회원국 전체에 출원할 수 있게 되었다.

설명회에서는 유럽상표청(OHIM) 마드리드시스템 전문가 1인과 우리나라 특허청 마드리드의정서 업무 담당자가 설명회 연사로 참석하여 개인, 기업, 변리사, 지재권 전문가, 지재권전공학생 등을 대상으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및 동 제도와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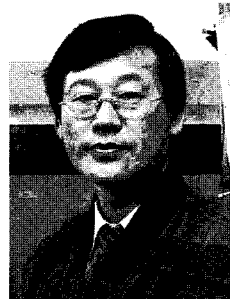
상표출원의 관계 등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소개해 이해를 도왔다.

이 설명회는 유럽공동체와 우리나라의 교역이 크게 신장되고 있는 추세일 뿐만 아니라 유럽공동체가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함으로써 우리나라와 유럽공동체간 상표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유럽공동체 상표제도 설명회가 열린 것.

이로인해 국제상표출원을 희망하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상표업무를 담당하는 변리사와 지재권 전공 학생 등 일반수요자들에게 유럽공동체 상표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특허청은 2000년부터 유럽상표·의장청(OHIM)과 상표의장심사관회의를 공식적으로 발족시키고 매년 심사관회의를 정례화하여 양청의 심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는 등, 1996년 이후 유럽상표청과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왔다.

## 공무원이 향기나는 병뚜껑 등 특허 출원



향기가 나는 병뚜껑 등 6건의 특허를 출원, 등록한 충북대학교 시설과 김봉기(44·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계장.

대학의 한 공무원이 ‘향기나는 병뚜껑’ 등 6건의 특허를 출원·등록해 화제가 되고 있다. 충북대 시설과의 김봉기(44·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계장은 최근 ‘방향제 수용부가 제공된 병뚜껑’의 특허를 등록했다.

김 계장은 술을 마시면서 병에서 향기가 나면 술맛이 어떨까라고 다소 엉뚱한 생각을 했다. 그는 고민 끝에 기존의 병뚜껑 위에 향기가 나는 물체를 넣은 또 다른 병뚜껑을 씌워 병을 열 때마다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병뚜껑을 고안, 이를 직접 만들어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준 결과 좋은 반응을 얻어 2002년 2월 특허를

출원했다. 그는 ‘병뚜껑을 열면서 향기를 맡을 수 있다면 술이나 음료 등 내용물의 가치가 더 높아질 것’이라며 ‘고급 양주 등에 이를 활용하면 상품화가 가능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병뚜껑 외에도 5건의 특허를 출원하거나 등록해 놓았다. 지난 2002년 월드컵이 끝난 뒤 그 열기를 더 이어가기 위해 당시 사용했던 공과 축구화를 활용한 도자기와 병 등을 고안해, 지난해 8월 3건의 의장등록을 출원하고 지난 3월 등록까지 끝마쳤다.

또 아파트 외벽에 구조물을 설치해 광고판으로 활용하는 기술과 버섯과 고추장을 결합한 ‘버섯 고추장’도 특허를 출원해 놓은 상태다.

그는 ‘지난 2000년 열풍이 불었던 벤처기업들이 작은 기술로도 성공하는 것을 보고 발명을 시작했다’며 ‘요즘에는 길을 가거나 집에서 생활할 때 조금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으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유심히 보는 습관이 생겼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특허관리를 위한 10가지 전략 ⑥

## 특허권 매입도 방법이다

특허상품의 설비투자 및 제품출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 특허침해소송을 당하면 대단히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제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나라에서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태라면 실제 제품을 수출하기에 앞서 특허권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특허권을 확보한 후 수출하는 것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사례 LG전자 VS. 대만 오수스텍사

LG전자는 미국에서 ‘PCI Bus’에 관한 특허를 출원하여 취득(1건)하는 한편, 주변 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적극적으로 매입(Wang사(社)로부터 5건)함으로써 경쟁기업의 진입 방지책을 마련한 후 수출하였다.

또한 대만의 오수스텍사 및 미국 내 자회사 등이 동 제품을 생산, 판매하자 이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다.

LG전자는 주변기술까지 특허권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소송과 협상을 병행하고 있다.

이처럼 특허출원을 통하여 특허권을 획득하는 한편, 주변기술에 대한 특허권까지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법적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써 특허분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